

신입생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Learn How to learn

박은미*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연구원

인터넷이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이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양한 영역과 직업으로 분화되고 전문화되는 현대 사회의 속성 앞에서 대학교육은 자칫 읽기와 말하기, 글쓰기와 같은 기초 교육을 소홀히 대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해 가공하고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는 능력은 기초 교육이 탄탄하게 이루어진 토대 위에서 길러진다. 바깥 말해, 글쓰기와 말하기와 같은 능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력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인을 배출하기 위해서 대학에서의 기초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좋은 대학 입학만을 위한 '입시 전쟁'도 불사하던 학생들이 정작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수동적인 학습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교육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채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한국의 대학에서는 전공 분야에 진입하지 않은 1~2학년 학생들의 기초 학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입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과 교수진을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버드대학교와 프린스턴대학교의 신입생 세미나 프로그램(Freshman Seminar Programs)과 스탠퍼드대학교의 입문

세미나(Introductory Seminars)이다.

이번 학기부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대학교육에 적응을 돕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울대 신입생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Learn how to learn'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기 전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회차	교육 프로그램
1차	즐거운 책읽기
	학습 전략 I 자신의 학습 스타일 이해: 집중력 강화 및 학업 곤란 극복
2차	리포트, 이렇게 쓰자
	토론의 이론과 실제
3차	학습 전략 II 시간 관리 전략에서 노트 작성까지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4차	학습 전략 III 창의적 사고력 개발하기
	자료 및 정보 검색
5차	발표 자료 만들기: ppt부터 동영상까지
	프레젠테이션 실습: 비디오 분석

2005년 1학기 '서울대 신입생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Learn how to learn'

앞의 표에 나타나듯이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 생활에 필수적인 능력인 자료 선별과 읽기, 표현, 의사소통의 방법을 훈련시키고, 학습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각 강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선별력과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강좌들이다. '즐거운 책읽기'에서는 독서의 여러 방식과 책을 고르고 읽는 방법, 책읽기 습관 등을 강연하였다. '자료 및 정보 검색'에서는 강연자가 자료와 정보 검색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강의하고, 서울대학교의 소장 자료와 웹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방법을 시연하였다.

둘째, 글쓰기와 말하기와 같이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된 강좌

들이다. '리포트, 이렇게 쓰자'에서는 논술과 리포트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면서, 리포트 작성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 제기, 목차 설정, 글쓰기, 자료의 활용과 인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효과적 프레젠테이션 전략'은 이론 강연과 실습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론 강연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 사례를 직접 살펴보면서 효과적 전략이 소개되었다. '프레젠테이션 실습: 비디오 분석'에서는 이론을 밑바탕으로 참가자의 발표 장면을 촬영하여 동료와 강연자가 함께 관찰하고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자료 만들기: ppt부터 동영상까지'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강연이나 발표 자료를 만드는 상황을 전제하고, 작업에 필요한 기본 장비와 소프트웨어, 필수 제작 팁을 질의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자기 표현의 능력과 더불어 의사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 '토론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토론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구성 요소를 소개하고,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토론 문화 속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토론 기법에 대해 강연하였다.

넷째, 실제적인 학습 기술을 익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전략' 강좌는 세 차례 진행되었다. 먼저 '자신의 학습 스타일 이해'는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알고 개선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시간 관리 전략에서 노트 작성까지'에서는 고등학교와는 다른 학습 환경에 처한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시간 관리 전략, 노트 작성법 등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사고력 개발하기'에서는 창의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벗어나 창의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연하였다.

이와 같은 'Learn how to learn'의 구성과 내용은 기존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최한 '리포트 작성법 코스워크'와 '프레젠테이션 워크숍', '토론 워크숍' 등의 여러 워크숍을 바탕으로 대학 신입생들에게 적합하게 재구성되었고, '학습 전략' 영역은 새로 개발된 것이다. 이번 학기에 처음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구성 측면에서 타당성과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그와 더불어 진행 순서, 동일 영역 간의 유기적 연결성



김동일 교수(교육학과)가 학생들에게 학습 스타일을 진단하고 이해해 각자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찾는 방법을 강연하고 있다.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학 이후 3월 중순부터 5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 'Learn how to learn'은 시간이 흐를수록 참석률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참석률이 저조해진 데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학 생활에 적응한 신입생들이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과대학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 좀더 많은 신입생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학 생활에 훌륭히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VOD 강좌로 개발하여 본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강연 내용을 보완하여 'Learn how to learn' 자료집을 만들 예정이다. 